

**GIDON  
KREMER &  
KREMERATA  
BALTICA**

**CREDIA MUSIC & ARTISTS**

Plaid cashmere blanket, woven and dyed by hand.

**GIDON  
KREMER &  
KREMERATA  
BALTICA**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2022.9.2 FRI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22.9.2 (금)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이올린 | 기돈 크레머  
연주 | 크레메라타 발티카

### 아르보 패르트

에스토니아 1935-

### 프라트레스 (형제들)

### 야캅스 안체브스키스

라트비아 1992-

### 리그넘 (나무)

### 아르투르스 마스카츠

라트비아 1957-

### 한밤중의 리가

인 터 미 션

CREDIA

### 프란츠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1828

### 또 하나의 겨울나그네

라민타 세르크슈니테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겨울밤'  
슈베르트 미뉴에트 3번 주제에 의한 간주곡

알렉산더 라스카토프 바이올린, 타악기, 현악 앙상블을 위한  
'슈베르트-전원사'  
슈베르트 미뉴에트 3번 주제에 의한 간주곡

빅토르 키시네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봄꿈'  
슈베르트 미뉴에트 3번 주제에 의한 간주곡

게오르기스 오소킨스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넷가에서'  
슈베르트 미뉴에트 3번 주제에 의한 간주곡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거리의 노악사'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DEVIALET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를 만나다



PHANTOM  
IMPLOSIVE SOUND

CREDIA

DIONE  
SOUND. UNBOUND.



O D E

오드 메종 02-512-4091  
오드 메종 부산 051-747-4092

드비알레 플래그쉽 스토어  
드비알레 컬처 라운지  
드비알레 동탄롯데점

0507-1320-4091  
02-6233-7620  
031-8036-3620



**7:30PM, Friday, September 2, 2022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Gidon Kremer, Violinist  
Kremerata Baltica

**Arvo Pärt**

Estonia 1935-

**Fratres**

**Jēkabs Jančevskis**

Latvia 1992-

**Lignum**

**Arturs Maskats**

Latvia 1957-

**Midnight in Riga**

I N T E R M I S S I O N

CREDIA

**Franz Schubert**

Austria 1797-1828

**Another WINTERREISE**

**Raminta Šerkšnytė 'Winternacht' for violin and string orchestra**

Intermezzo: piece from F.Schubert Minuet No. 3 D89

**Alexander Raskatov 'Schubert - Idillio'**

**for violin, percussion and string orchestra**

Intermezzo: piece from F.Schubert Minuet No. 3 D89

**Victor Kissine 'Frühlingstraum' for violin and string orchestra**

Intermezzo: piece from F.Schubert Minuet No. 3 D89

**Georgijs Osokins 'Auf dem Flusse' for violin and string orchestra**

Intermezzo: piece from F.Schubert Minuet No. 3 D89

**Leonid Desyatnikov 'Wie der (alte) Leiermann...'**

**for violin and string orchestra**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Design your *Life* !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다양한 경험  
클럽발코니와 함께하세요

### FRIENDS

가입비 : 무료

예매수수료 없이 예매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CREDIA

### SMART

가입비 : 3만원  
유효기간 : 1년

공연할인 5~30%  
크레디아 및 파트너사 공연예매 시  
(공연별 최대 4매)

티켓오픈 SMS  
티켓오픈 알림 SMS / 단독 선예매  
(크레디아 기획공연 예매 시)

수수료 면제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면제

문화 이벤트  
렉처, 공연, 영화 등 이벤트 참여

매거진, 프로그램북 제공  
클럽발코니 매거진 무료 배송(연 4회)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FOC 제휴 할인  
클럽발코니 제휴 파트너사 할인혜택 제공



카페 담소  
전음료 10% 할인  
세종문화회관 2층  
서비스플라자 옆



빌라드샬롯  
카페 아메리카노  
1,000원 할인  
롯데월드몰 8,9층



라칼라스  
식사 10% 할인  
(런치, 세트메뉴 제외)  
02-521-332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



예전레코드  
음반 10% 할인  
(당일 공연 CD 제외)  
02-597-9536  
예술의전당 음악당 1층

## 아르보 패르트 형제들 (Fratres)

클래식 음악에서 21세기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생존 작곡가'는 누구일까? 바로 에스토니아 출신의 아르보 패르트(Arvo Pärt)로,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같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으로 그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거울 속의 거울(Spiegel im Spiegel)'을 비롯한 많은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에 쓰인 덕도 있겠지만, 언뜻 단순하게 들리는 음악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명상적인 분위기, 듣는 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함, 그리고 깊은 성찰이 담겨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젊은 시절 신고전주의와 음렬주의 음악의 영향을 받았던 '아방가르드 작곡가' 패르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소련 당국의 박해를 받고 8년 동안(1968-76)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음악을 처음부터 새롭게 정리했다.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점차 과거로 향했는데, 특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교회 음악 전통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침묵과 여백을 중시하며 종교적 영성을 담은 독특한 음악이 탄생했다. 1977년에 만들어진 '형제들'은 <알리나를 위하여(For Alina)>와 더불어 패르트가 침묵을 깨고 발표한 초기작 중 하나로, 라틴어 제목은 수도원을 암시하는 듯하다. 10도로 나란히, 느리게 움직이며 침잠하는 두 개의 주제 선율과 이를 둘러싼 3화음(틴티나볼리)으로 이루어진 패르트 특유의 미니멀리즘 기법이 전면에서 드러난 작품이다. 두 개의 주제 선율과 나중에 가세하는 또 하나의 선율은 작곡가의 표현대로 '현재와 영원의 끝나지 않는 갈등'일 수도 있고, 혹은 수도사들이 묵상을 하며 수도원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습 같기도 하다. 패르트는 1980년 이후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형태의 편곡을 만들었는데, 오늘 연주회에서는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본(1992)을 듣게 된다.

## 야캅스 안체브스키스 나무 (Lignum)

야캅스 안체브스키스(Jēkabs Jančevskis)는 라트비아 출신의 젊은 작곡가다.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나무'는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위해서 쓴 작품으로, 2017년에 초연되었다. 작품 제목은 라틴어에서 가져온 것으로, 작곡가에 따르면 나무로 상징화된 자연과 인간의 대화를 의미한다. 편성은 현악 앙상블에 스빌파우니에키(Svilpaunieki) 세 개, 글로켄슈필, 풍경(wind chime)을 더했는데, 스빌파우니에키는 흠으로 빛은 라트비아 민속 악기로 부드럽고 선명한 소리를 낸다. 작곡가는 라트비아의 울창한 숲과 사계절, 그리고 이를 통한 명상을 음향으로 구현했다.

## 아르투르스 마스카츠 한밤중의 리가 (Midnight in Riga)

또 한 명의 라트비아 작곡가 아르투르스 마스카츠(Arturs Maskats)의 '한밤중의 리가' 역시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위해서 쓴 작품으로, 2016년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리가에서 나치스의 눈길을 피해 수십 명의 라트비아 유대인을 숨겨서 생명을 구한 야니스 립케(Jānis Lipke)와 요하나 립케(Johana Lipke) 부부를 기리는 곡으로, 작곡가는 2012년에 야니스 립케 기념관이 문을 열었을 때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더불어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참혹한 전쟁을 살아낸 '내 부모와 조부모 세대, 그들의 꿈과 희망에 바치는 곡'이기도 하다. 독주 바이올린과 독주 첼로가 이끄는 우아한 선율이 인상적인데, 현악 앙상블의 피치카토 연주와 비브라폰(vibraphone)이 한데 어우러지며 탕고 풍의 매혹적인 음악이 펼쳐진다.



## 프란츠 슈베르트와 여러 작곡가들 또 하나의 겨울나그네 (Another WINTERREISE)

슈베르트 미뉴에트 3번 주제에 의한 간주곡

라민타 셰르크슈니테 (1975-)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겨울밤 (Winternacht)'

알렉산더 라스카토프 (1953-)

바이올린, 타악기, 현악 앙상블을 위한  
'슈베르트-전원시 (Schubert-Idillio)'

빅토르 키시네 (1953-)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봄꿈(Frühlingstraum)'

게오르기스 오소킨스 (1984-)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냇가에서(Auf dem Flusse)'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 (1955-)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거리의 노악사(Wie der (alte) Leiermann...)'

기돈 크레머와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오래 전부터 페르트, 칸첼리Giya Kancheli, 실베스트로프Valentin Silvestrov 등 현대 작곡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작품을 의뢰, 연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옛 음악을 새로운 음악 언어로 바꾸거나 우리 시대의 음악과 접목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했다. 바흐 음악을 새롭게 펼쳐낸 '기악 편성의 기법 - 글렌 굴드를 향한 오마주(The Art of Instrumentation: Homage to Glenn Gould)', 베토벤 현악사중주를 편곡한 '베토벤을 찾아서(Searching for Ludwig)' 등의 인상적인 프로젝트가 그 결과물이었다. 오늘 듣게 될 '또 하나

의 겨울나그네'는 크레메라타 발티카 창설 25주년과 기돈 크레머의 75세 생일을 기념해서 의뢰한 작품으로 2022년 4월에 초연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슈베르트의 위대한 연가곡집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모은 21세기의 또 다른 '슈베르트 사이클'이다.

크레머는 1997년, 슈베르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러시아 작곡가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Leonid Desyatnikov)에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위촉했다. 데샤트니코프는 <겨울나그네>의 마지막 노래인 '거리의 악사(Der Leiermann)'에서 영감을 받은 '거리의 노악사(Wie der (alte) Leiermann)'를 썼는데, 얼마 후 크레머의 요청으로 바이올린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편곡판도 만들었다. 미니멀리즘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곡은 슈베르트 음악에 바치는 경이인 동시에 '코멘트'이며 또한 음악가라는 직업에 관한 환상곡이었다. 그리고 2022년, 데샤트니코프의 작품에 다른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작곡가들이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에 바친 오마주, 혹은 환상곡 네 곡을 더한 이번 신작은 그 연장선, 혹은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라민타 셰르크슈니테(Raminta Šerkšnyte),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더 라스카토프(Alexander Raskatov)와 빅토르 키시네(Victor Kissine), 라트비아 출신의 게오르기스 오소킨스(Georgijs Osokins)는 모두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오래 함께 작업한 작곡가들로, '발티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트해 연안 국가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크레머의 의도와 부합한다. 특히 오소킨스는 조성진이 우승했던 2015년 17회 쇼팽 콩쿨에서 결선에 올랐던 피아니스트로 우리 음악애호가들에게도 알려진 음악가다. 이들의 작품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녔지만, 모두 21세기의 음악 언어와 19세기 초반 슈베르트의 독일 낭만주의를 하나로 엮은 인상적인 표현을 들려준다. 또 각 작품 사이에는 슈베르트의 춤곡(D93)에서 가져온 미뉴에트 단편을 일종의 간주곡으로 삽입해서 전곡에 통일성과 응집력을 더했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Brahms, Piano Quartet No.3 in c minor, Op.60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 Philippe Gontier

# MAESTRO

M Y U N G W H U N C H U N G



김수연 Violin

김사라 Viola

송영훈 Cello

성민제 Double bass

TOUR

9/14 WED 용인포은아트홀

9/20 TUE 음성문화예술회관

9/17 SAT 강릉아트센터

9/21 WED 부산문화회관

9/18 SUN 전주세계소리축제

9/24 SAT 경주예술의전당

2022.9.15 THU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GIDON KREMER &  
KREMERATA BALTICA**

##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추앙받는 기돈 크레머는 아마도 가장 자유로운 커리어의 소유자일 것이다.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태어난 그는 빼어난 현악 연주자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4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 16세 때 라트비아 공화국 콩쿠르에서 1위에 올랐으며, 2년 뒤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를 사사했다. 1967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를 시작으로 파가니니,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를 휩쓸었다. 화려하게 시작한 커리어는 기돈 크레머를 이 시대의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우뚝 세우며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 주었다. 유럽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실상 모든 주요 콘서트 무대에 서왔고, 당대 최고의 지휘자와 함께 작업해왔다.

기돈 크레머의 레퍼토리는 모든 고전, 낭만 시대의 주요 바이올린 작품뿐만 아니라 헨체, 베르크, 슈톡하우젠과 같은 20~21세기 거장의 작품을 아우르기에 실로 광범위하다. 또한, 현존하는 러시아 및 동유럽 작곡가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여 그들의 중요한 신작을 많이 연주해왔고, 이중에는 그에게 헌정하는 곡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알프레드 슈니트케, 아르보 페르트, 기야 칸첼리,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루이지 노노, 존 아담스, 빅토르 키시네, 마이클 니만, 필립 글래스, 아스토르 피아졸라 등 다양한 작곡가들과 교류해온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청중에게 음악을 선사했다. 지난 30년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솔리스트 중에서도 이 정도로 현대 작곡가의 작품을 소화해낸 연주가는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레코딩 업적 또한 이례적일 정도로 다작을 자랑한다. 기돈 크레머는 120개가 넘는 음반을 녹음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가 그의 뛰어난 해석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그가 받은 상으로는 프랑스 '디스크 그랑프리상', '독일 음반상',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 키자나 음악원이 수여하는 '올해의 연주가상', 모스크바 '트라이엠프 프라이즈', 2001년 '유네스코 상', 2007년 '드레스덴 새쿨룸-글라쉬테 오리지널 뮤직 페스티벌 상', 2008년 '스

톡홀름 볼프 쇼크상' 등이 있다. 2010년에는 이스탄불 음악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2011년에는 이탈리아 '평생 음악상'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음악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일본 프리미엄 임페리얼상을 받았다.

1997년 기돈 크레머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전도유망한 젊은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해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설립했다. 이때부터 크레머는 이들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 투어를 펼치고 있으며, 텔렉, 논서치, 부를레스케, DG, ECM 레이블로 24장이 넘는 레코딩 작업을 해왔다.

2002년 2월 크레머와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논서치 레이블 <After Mozart>로 소규모 앙상블 연주 부문 그래미상을 받았고, 이 앨범은 2002년 가을, 독일 예코상까지 받았다. 2014년 발매된 ECM의 미치슬라프 바인베르크의 작품 음반은 2015년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2015년 도이치 그라모폰은 기돈 크레머와 크레메라타 발티카가 녹음한 필립 글래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2번 <The American Four Seasons>와 페르트, 칸첼리, 우메바야시의 작품을 모아 음반 <New Seasons>를 발매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칸첼리의 80세 생일을 맞아 그의 작품 키아로스쿠로(명암법)와 트와일라잇(황혼)을 담은 음반이 ECM을 통해 발매되었다. 이 둘은 발매 직후 호평이 쏟아졌던 음반이다.

한편, 도이치 그라모폰은 기돈 크레머의 70세를 기념하여 그가 DG와 필립스에서 남긴 음반 전집을 한정 발매하였다. 총 22개의 CD로 이루어진 이 음반은 그가 녹음한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외에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남긴 두 음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발매 녹음이었던 슈니트케 '삼중협주곡'을 최초로 수록했다. ECM 역시 그의 70세를 맞아 바인베르크 체임버 심포니 전곡 음반을 발매하였다.

기돈 크레머는 1641년 산 니콜라 아마티를 사용한다.



## Gidon Kremer, Violinist

Among the world's leading violinists, Gidon Kremer has perhaps pursued the most unconventional career. He was born on 27 February 1947 in Riga, Latvia, and began studying at the age of four with his father and grandfather, both distinguished string players. At the age of seven, he enrolled as a student at Riga Music School where he made rapid progress, and at sixteen he was awarded the First Prize of the Latvian Republic. Two years later he began his studies with David Oistrakh at the Moscow Conservatory. Gidon Kremer went on to win a series of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prizes in the 1967 Queen Elisabeth Competition in Brussels and 1969 Montrea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and first prize in both the 1969 Paganini and 1970 Tchaikovsky International Competitions.

Over the past five decades he has established and sustained a worldwide reputation as one of the most original and compelling artists of his generation. He has appeared on almost every major concert stage as recitalist and with the most celebrated orchestra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has worked with many of the greatest conductors of the past half century.

Gidon Kremer's repertoire is unusually wide and strikingly varied. It encompasses the full span of classical and romantic masterworks for violin, together with music by such leading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y composers as Berg, Henze and Stockhausen. He has also championed the work of living Russian and Eastern European composers and has performed many important new compositions by them, several of which have been dedicated to him. His name is closely associated with such composers as Alfred Schnittke, Arvo Pärt, Giya Kancheli, Sofia Gubaidulina, Valentin Silvestrov, whose works he performs in ways that respect tradition while being fully alive to their freshness and originality. It is fair to say that no other soloist of comparable international stature has done more to promote the cause of contemporary composers and new music for violin.

An exceptionally prolific recording artist, Gidon Kremer has made over 120 albums. Many of these have received prestigious international awards and prizes in recognition

of his exceptional interpretative insights. The artist's list of awards includes, among many others, the Grand prix du Disque, the Deutscher Schallplattenpreis, the Ernst von Siemens Musikpreis. In 2016 Gidon Kremer has received a Praemium Imperiale prize that is widely considered to be the Nobel Prize of music.

In 1997 Maestro Kremer founded Kremerata Baltica chamber orchestra to foster outstanding young musicians from the three Baltic States –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The ensemble and its founder have toured extensively together over the past two decades, appearing at the world's leading festivals and concert venues. They have also recorded two dozen albums for the Teldec, Nonesuch, Burleske, Deutsche Grammophon and ECM labels.

In February 2002 Gidon Kremer and Kremerata Baltica received the Grammy Award in the "Best Small Ensemble Performance" category for *After Mozart* on Nonesuch; the album was awarded an ECHO Klassik later that year. Their 2014 release on ECM of works by Mieczysław Weinberg was nominated for a Grammy in 2015.

To mark the 70th birthday of the violinist, Deutsche Grammophon has issued a limited CD Box in October 2016 – a total of 22 CDs of complete recordings of violin concertos for the label with two extraordinary concept albums by Kremerata Baltica, including the premiere recording of Schnittke's *Concerto for Three*, not previously released. ECM New Series marked the occasion with a new album of all Mieczyslaw Weinberg's chamber symphonies, released in January 2017, recorded together with Kremerata Baltica.

Gidon Kremer plays an instrument made by Nicola Amati in 1641. He is the author of four books, of which the latest is *Letters to a Young Pianist* (2013). These writings have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and reflect the breadth of his artistic pursuits and aesthetic outlook.

## 크레메라타 발티카

1997년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에 의해 창단되었으며, 그레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실내악단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앙상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마에스트로 기돈 크레머는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괴롭히는 '오케스트라 매너리즘(orchestritis)'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젊고 열정적인 음악가들을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단원으로 선발했다. 클래식 주류 음악을 넘어 아르보 페르트, 기야 칸첼리, 페테리 바스크스,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 알렉산더 라스카토프와 같은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세계 초연하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예술적인 특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미치슬라프 바인베르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의 실내 교향곡과 피아노 5중주곡을 녹음하기도 했다.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창단 이후로 전세계 600개 도시, 50개국을 넘는 지역에서 1500회 가량의 공연을 해왔다. 이들의 광범위하고 엄선된 레퍼토리는 그들의 수많은 CD 레코딩 앨범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들의 음반은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는데, ECM 레이블에서 발매된 미치슬라프 바인베르크의 작품 음반은 2015년에 그레미상을 수상했으며, 안나 비니초카야가 협연한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음반은 2016년도 에코 클래식상을 수상했다. 버밍엄 시티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미르가 그라치니테-틸라가 함께한 바인베르크 교향곡 2번과 21번 음반은 2020년에 그라모폰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들은 기돈 크레머와 함께 국제적으로 음악의 저변을 풍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리미엄 임페리얼상(Praemium Imperial)을 수여받기도 했다.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단원들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규제로 인해 이전처럼 전세계를 다니며 관객을 만나고 공연을 하지는 못했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국적으로 이루어진 크레메라타 발티카 단원들은 각각 자신들의 나라에서 프로그램 구성을 준비하고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기돈 크레머의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새로운 세대와 공유하는 데 함께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트인들의 음악적, 문화적 삶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Kremerata Baltica

Founded in 1997 by renowned violinist Gidon Kremer, the Grammy-Award winning chamber orchestra Kremerata Baltica is considered to be one of Europe's most prominent international ensembles. Maestro Kremer intentionally selected young, enthusiastic musicians to stave off the dreaded "orchestritis" that afflicts many professional orchestral players. Essential to Kremerata Baltica's artistic personality is its creative approach to programming, which often ranges beyond the mainstream and has given rise to world premieres of works by composers such as Arvo Pärt, Giya Kancheli, Pēteris Vasks, Leonid Desyatnikov and Alexander Raskatov. In recent years, the orchestra has placed a special focus on Mieczyslaw Weinberg's work, recording all of his chamber symphonies as well as the piano quintet (in orchestral setting).

Since its establishment Kremerata Baltica has played in more than 50 countries, performing in 600 cities and giving more than 1500 concerts worldwide.

The orchestra's wide-ranging and carefully chosen repertoire is also showcased in its numerous and much-praised recordings. Its album of works by Mieczysław Weinberg on ECM was nominated for a 2015 Grammy Award, its recording of Shostakovich's piano concertos with Anna Vinnitskaya won the ECHO Klassik 2016. The recording of Weinberg's symphonies No. 2 and No. 21, a joined adventure with the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and Mirga Gražinytė-Tyla, received a Gramophone Award in 2020.

Kremerata Baltica as well as Gidon Kremer have been awarded the Praemium Imperale for their international achievements and their role in enriching the global field of music.

Due to the coronavirus restrictions in 2020 the orchestra wasn't able to meet, rehearse, perform concerts and travel the world as usual. But the members, living in different countries, did not lose their desire to perform music and bring joy to people. The members of Kremerata Baltica who live in Lithuania started preparing programs and performing concerts there, and those who live in Latvia started performing in Latvia and Estonia.

The Kremerata Baltica also serves as a medium to share Gidon Kremer's rich artistic experience with the new gener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promote and inspire the musical and cultural life of the Baltics.



CREDIA

◇ Group leader

**Gidon Kremer** Violinist, Artistic Director and Founder

**Violin I** —————

Džeraldas Bidva ◇

Stella Zake ◇

Aleksejs Bahirs

Zane Kalnina

Rakele Chijenaite

Marija Nemanyte

**Violin II** —————

Alina Vizine ◇

Linas Valickas ◇

Sabine Sergejeva

Konstantins Paturskis

Marija Strapcane

Kristina Morozova

**Viola** —————

Jevgenija Frolova ◇

Katrina Anna Pelnena

Marta Racene

Emilija Minkeviciute

**Cello** —————

Giedre Dirvanauskaite ◇

Peteris Cirksis ◇

Anna Veselova

Kristers Simanis

**Double Bass** —————

Iurii Gavryliuk

Kristaps Petersons

**Percussion** —————

Andrii Pushkarov



## 기돈 크레머와의 인터뷰

Interview with Gidon Kremer

**Q. 75세 기념 공연이자 크레메라타 발티카 창단 25주년 기념 투어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열광적인 한국 관객과 5년 만에 만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놀라게 되는 건 관객들이 짧은 기간에 계속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클래식 음악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수한 한국 연주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Q. 공연 프로그램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모티브로 여러 현대 작곡가들이 재창조한 '또 하나의 겨울 나그네'는 한국에서의 공연이 아시아 초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선보이려고 해요. 제가 시작했고,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태어난" 프로젝트죠. 바로 '또 하나의 겨울나그네'인데요. 여러 명의 현대 작곡가들이 슈베르트의 작품을 기반으로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위해 특별히 편곡한 작품입니다.

**Q. 2004년에도 '애프터 슈베르트'로 슈베르트 곡들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현대작곡가들에게 곡을 새롭게 써줄 것을 부탁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왜 슈베르트의 작품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늘 여러 양식과 악보, 그리고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슈베르트의 작품을 선택했죠. 그의 음악은 매우 심오하고 영혼을 감동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크레메라타 발티카에게 기념비적인 해에 슈베르트를 선택한 건 저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를 고른 것은 클래식 레퍼토리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려고 했던 저의 평범한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슈베르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현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Q. 안체브스키스와 마스카츠는 한국 팬들에게는 생소한 작곡가일 것 같습니다. 이들의 작품들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발트 3국 출신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인데요. 그렇기에 발트 3국 출신의 작곡가들이 저희를 위해 만든 새롭고 혁신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도 있고요.

**Q. 간혹 당신의 공연 프로그램은 편하게 즐기기에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청중들이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들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절대 저희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저희가 연주하는 곡들 대부분은 현대 음악의 보석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관객분들은 그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이 영혼을 채우도록 두면 돼요. 저는 언제나 관객분들이 음악을 통해 지식과 감정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25년간 함께해 온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현재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4명의 핵심 창립 멤버와 수많은 젊은 음악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제가 지난 25년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호기심과 유연한 정신, 그리고 발견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Q. 75세를 맞이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면서도 여전히 모험적, 진취적 등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연주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험적인 음악을 이어가며 한계를 두지 않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창의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창의적으로 살 뿐입니다.

**Q. 70세 이후로는 공연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5-10년 후에는 어떤 새로운 곡을 관중에게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5년, 10년 같은 긴 플랜을 세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론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곧 ECM 레이블에서 새로운 음반이 나와요. 이 외에도 DG, 소니, 낸서치, 악센투스 레이블과도 많은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이 새 음반의 타이틀은 <Song of Fate>예요. 관객분들의 호기심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음악이 먼저, 말은 그 다음에(Prima la musica, poi le parole)"\*가 제 인생의 슬로건이거든요.

# TAKÁCS QUARTET



리처드 용재 오닐, 전설들과 마주하다

## 타카치 콰르텟 내한공연

하이든 현악사중주 F장조 Op. 77, No. 2 | 바르톡 현악사중주 6번 Sz. 114 |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D. 810 '죽음과 소녀'

2022.10.6 THU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티켓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